

## 근심인가? 소망인가?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0년이였다. 구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를 지치게 만든 일들이였다.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모두 어렵고 힘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백신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던 백신이 나왔으니 이제는 숨을 크게 몰아쉬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긴다. 하지만 그 기대가 나에게까지 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다.

그러면 백신을 맞으면 나아질까? 의심이 생긴다. 백신이 생기면 이전과 같이 악수하고 얼굴을 비비며 반가워할 수 있을까? 크게 떠들며 같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즐거운 여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더 나가서는 과연 교회가 이전의 교회와 같을 것인가? 과연 많이 모여서 크게 찬양하고 강단에서 더 크게 “아멘”하라고 경고 할 수 있을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부르고 서로를 안아주고 더 많은 것을 주고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더 나가서 과연 내 손으로 전하여 준 전도지를 자기 손으로 받으며 내가 길게 설명하는 예수 십자가 메시지의 결론을 듣기 위하여 기다려 줄까? 우리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자랑하며 예배로 초청할 수 있을까? 온통 궁금함과 의심이 여기저기에서 생긴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서 2021년을 맞았다. 과연 새해를 맞는 나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할 텐데 시간은 가고 새해는 왔으나 나의 생각은 나를 2020년에 붙들어 놓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분명 우리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실 텐데 2021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많이 궁금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혼란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으며 길이 막힐 때에 길을 내시고 말 할 수 없을 때에 할 말을 주신다고 하신다. 나의 뒤에서 “이리도 저리도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신다. 갈 길을 보이고 훈계하여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다. 걱정과 근심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답답한 일들의 결론이 오히려 궁금해진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부흥의 시작일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끝날 때에는 어떠한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하실까? 이제는 크게 기대가 된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오래 가지 않아 기대와 소망으로 늘 바뀌고 만다. 성경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깨달게 하셔서 수렁이 아니라 새로움 이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라고 말씀하신다.

2021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우리의 입에서 “어서 이루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1년이 크게 기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주여”